

##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

전미란

공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의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과학영재고등학교 조기입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를 추출하였다. 조기입학 학생들은 연습삼아 지원했다가 합격하게 되면서 준비 없이 1년을 단축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따라잡음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기숙사 생활, 학생들의 학습을 중시하는 분위기 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리더로 나서기가 어렵거나 뭔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하고 결국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기입학 같은 학생 배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나 개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조기입학, 과학영재, 과학영재학교, 현상학적 연구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정규학교에 다니면서 일 년이나 이 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영재교육에서는 영재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기입학 제도를 조금씩 활용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숙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월반 유급제를 제안한 이래 1992년 교육정책자문회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를 제안하고 1995년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었다(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 일찍이 전국적으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졸업시기만 1년 정도 앞당기는 정도였고, 그 이후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면서 조

교신저자: 전미란(mrc318@kongju.ac.kr)

기입학을 허용하여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도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이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한 학교에 한두 명으로 매우 드문 일이지만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되고 있어 조기입학 학생들의 학업 및 정서적 학교적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은 학생이 타고난 잠재능력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며, 균등한 교육기회가 중요한 만큼 능력과 적성이 다른 학생들을 확실적으로 다루어 타고난 잠재능력 신장을 저해하여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라고 하였다. 조기입학 제도는 연령과 학년 기준을 벗어나 학생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Brody, 2001)는 속진(acceleration)제도의 일환이며,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서 교수 속도를 조절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Gallagher, 2002)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그 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 온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1년이나 2년 차이를 극복하고 동등한 학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와 같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중학교 과정을 1년 또는 2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학업적인 측면에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모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기입학 제도의 적용이나 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AP코스를 통한 대학 수준의 조기입학에서 다루어졌으며(Boazman & Sayler, 2012; Brody & Stanley, 1991),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 및 정서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기입학제도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관심은 학습기회의 제공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조기입학 학생들이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해서 실제로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속진과 조기입학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연구된 것들로(Callahan, Cornell, & Lloyd, 1992; Janos & Robinson, 1985; Janos, Robinson, & Lunnenborg, 1989; Lupkowski, Whitmore, & Ramsay, 1992; Noble & Drummond, 1992; Olszewski-Kubilius, 2002; Saylor, 1993; Stanley, 1991; Stanley & Benbow, 1983; Swiatek & Benbow, 1991) 그 연구 결과와 실행방법을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과 연령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기입학을 한다는 것이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업이나 친구관계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의 조기입학으로 인하여 같은 학년의 동료들과는 연령도 다르고 교육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학영재학교를 같이 출발한 학생들의 성취와 적응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향후 좀 더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조기입학 및 졸업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명백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훌륭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재능발달 경향을 연구한 Bloom(1985)에 의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문가로 활동하기까지의 성장과정 동안 적절하고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고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조석희, 이미순, 박성익, 이현주, 2006; 이미순, 조석희, 2009).

조석희 외(2006)는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를 발달심리이론(Lubinski, 2004; Robinson, 1983; Robinson & Robinson, 1982; Stanley & Benbow, 1983)에서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습은 계열적이며 발달적인 과정으로서, 학습과정 중에 학생의 능력과 흥미 정도 및 수준을 민감하게 평가하고, 이미 완전 학습한 내용보다는 약간 어려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학생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하며, 학습에 대한 준비도와 실제 학습하는 내용 수준 사이의 적합성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며, 학생의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의 개인차를 결정지을 수 없다.

단순하게 연령으로만 학년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속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달심리이론에서 정리한 근거를 보면 조기입학, 조기졸업 제도나 그와 반대인 유급제도 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들은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이지만 한 것은 아닌데, 우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Marsh & Hau, 2003; Robinson, 2004)를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뛰어났던 학생들은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조기진급을 하거나 조기입학을 한 후 자기보다 나 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학생들 틈에서 공부하게 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저하되어,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한 이후 부정적인 학업과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생들의 부정적인 문제 중 대부분은 미성취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lszewski-Kubilius, 1995). 즉, 새롭게 진급하거나 입학한 곳에서 너무 도전적인 학습내용에 직면할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어 미성취 양상을 보이게 된다(Gregory & March, 1985)는 것이다. 또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으로 인해 초기에 경험한 학업적인 스트레스, 대학 초에 이성과의 만남, 조기진급자에 대한 고정관념 및 어린 나이에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보고하였다(Noble & Drummond, 1992). Noble과 Smyth(1995)는 그 연령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Lubinski & Benbow, 1994; Brody, 2001; Kulik & Kulik, 1991; Stanley & Benbow, 1983)들도 많이 있다. 조기진급한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고(Janos, Sanfilippo, & Robinson, 1986; Noble, Robinson, & Gunderson, 1993), 보통 성적이 B+ to A- 정도라고 밝혔으며(Swiatek & Benbow, 1991), 제 시간에 대학을 졸업하고(Brody, Assouline, & Stanley, 1990), 장학금이 더 많았다(Brody et al., 1990; Stanley & McGill, 198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커다란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몇몇 유명한 사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면 어린 학생들이 나이 많은 학생들 틈에 끼어서 공부할 하기 때문에, 정서 및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Janos & Robinson, 1985; Robinson, 2004; Robinson & Noble, 1992), 이들 심리사회적 성숙 및 적응은 학생의 생활 연령보다 정신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히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동일한 연령의 또래들과 학습할 때, 더 많은 정서적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langelo, 2002; Davis & Rimm, 2004). 일반적으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직후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긴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Swiatek, 1993). 조기진급 후 학생의 학업 상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하고 있으며, 도전적인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lik, 2004).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조기입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Gregory와 Stevens-Long (1986)의 연구에서도, 이들 학생들은 입학 한 첫해에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양분화된 결과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본 연구는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 수는 더욱더 소수이므로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지만 자신이 특별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이 왠지 불편하다고 표현하거나 특별히 이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표 1&gt; 연구 참여자 현황

사례	성별	현재 학년	속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라온 환경
1	남	2학년	1년	의사	주부	많은 기회를 주셨음
2	남	3학년	1년	사업	주부	학원 등 결정을 맡겨주심
3	남	3학년	1년	연구원	주부	허용적이고 믿어주심
4	남	3학년	1년	경찰	미용실	허용적이고 믿어주심
5	남	2학년	1년	의사	주부	잔소리가 심하셨음
6	남	2학년	1년	교수	주부	책을 많이 읽게 하심
7	남	2학년	1년	교사	주부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심
8	남	3학년	1년	학원강사	방과후교실운영	허용적이었음
9	남	2학년	1년	교수	교수	캠프 등 많은 기회를 주셨음
10	남	3학년	1년	회사원	주부	책을 많이 읽게 하심
11	남	3학년	1년	밝히지 않음	밝히지 않음	허용적이고 믿어주심
12	남	2학년	1년	식당	보험/화가	결정을 존중하고 허용적
13	남	3학년	1년	연구원	주부	많은 기회를 주셨음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모두 1년을 앞당겨 입학하게 되었던 학생들이었고 현재 2학년 6명 3학년 7명이었다. 현재 성적은 15등 이내라고 명확하게 밝힌 학생 한 명과 결국 상위권으로 들어갔다고 드러낸 학생들 3명 외에는 과목마다 등수가 너무 다르다고 하였으며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표현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 자료수집

주로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고 인터뷰는 약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가능한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상세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의 비밀과 연구결과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메일이 편하다고 미리 의사를 밝혔던 학생들과는 이메일만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적게는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이메일이 오고갔다. 인터뷰를 실시했던 학생들도 추후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경우 다시 이메일로 확인하고 분석 과정에서도 의문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 교환을 통하여 추가 자료가 수집되었다.

인터뷰 앞부분에는 학교 시설이나 학교 분위기 등의 대화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인터뷰에서는 학교에 일찍 지원하고 조기입학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를 시작으로 하여 학업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조기입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사용한 주요 질문은 “조기입학생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자유롭게 말해주시겠어요?” 또는 “조기입학을 한 것은 학업적으

로나 정서적으로나 일반 입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등이었으며, 점차 참여자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볼래요?”, “중학교 때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 나.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조기입학 경험의 의미는 무엇 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상을 밝히고 현상의 경험을 정확하게 서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Creswell(2007)에 의하면,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개념이나 특정 현상에 대하여 몇몇 개인의 산 경험에 대한 의미를 묘사해주며,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묘사로부터 일반적인 의미를 이끌어 준다고 하였으며, Leininger(1985)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주어진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하여 총체적인 전망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Giorgi(1985)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조기입학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얻기 위해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나서 의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조기입학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의 표현을 찾았으며 이를 통하여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기입학의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을 배제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절 248개를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명확한 의미를 주제와 중심의미로 범주화하여 1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의미 문장과 주제 및 중심의미에 대하여 영재교육 전문가 1인이 연구자와 같이 검토하였다. 이렇게 진술된 중심의미가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중심의미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았다. 각 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이 원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와 중심의미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조기입학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제와 중심의미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 경험의 의미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내용은 248개였으며 이를 13개의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로 도출하였다. 다음은 주제

와 중심의미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분석결과 주제와 중심의미

주제	중심의미
합격에 대한 놀라움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것을 합격의 이유로 생각함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
1년 공백에 대한 걱정 따라잡음의 문제	1년 공백 따라잡음의 문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쉬임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학교 환경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함 센스가 부족함 리더로 나서기 어려움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님
형이라 부르는 친구 생활면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음 성격이 중요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함

조기입학 경험의 분석결과를 중심의미 내에 포함된 주제들과 주제로 모아진 구체적인 진술의 원자료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심의미 1: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

첫 번째 중심의미는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이다. 조기입학 학생들은 합격할 것을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합격을 위해 미리 연습 삼아 지원했다가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스스로 놀라게 되었고 합격한 이유를 자신들이 그래도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서 결국 입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합격에 대한 놀라움

조기입학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의외의 합격 소식”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스스로 크게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놀라움이 배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기입학을 계획하거나 꼭 조기입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입학을 위하여 연습 삼아 시험에 응시해본 것인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이 연습 삼아 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지원해 본건데 합격을 한 거예요.”, “후년에 대한 모의고사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썼었어요.”, “딱히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조기입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꼭 일찍 들어오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엄청 좋았죠(웃음)”, “학원 가서 미리 준비한 애들도 많았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안했는데도 붙어서 민기가 좀 어려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는데 신기했어요.”와 같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합격이 아니라 놀라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 학생의 표현을 그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험만 한번 응시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그런데 1차, 2차 자꾸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였나? 하고 엄청 놀란 거죠. 부모님도 의아해하시고.... 하하.

**2) 주제 2: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것을 합격의 이유로 생각함**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1년 일찍 합격한 이유를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한 흥미와 실력으로 돌렸다. 물론 “내가 왜 붙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하하” 또는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학교 때 전교 석차가 1~2등이었다고 한 학생들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해 가졌던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때 모든 과목을 전체적으로 잘했던 학생들보다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수학과 과학 과목을 월등히 잘했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과학은 정말 잘 하거든요.”, “성적은 전체는 전교 5등 정도이었지만 수학은 전교 1등이었죠.”, “애들이 시험기간에 과학 수학 문제를 반에서 1등하는 애한테 묻지 않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성적은 반에서 5등 정도였는데 수학은 KMO나 서울시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일찍 입학한 것은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역할할...”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나. 중심의미 2: 1년 공백과 따라잡음의 문제**

두 번째 중심의미는 ‘1년 공백과 따라잡음의 문제’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하지 않고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1년 공백에 대한 걱정**

조기입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 1년을 마치지 않고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갑작스러웠고 미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해에 또 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그냥 진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험에 합격해서 취소했다가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하거나 “일단 합격을 일 년 미루고 다음해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를 해 보았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지만 엄청 걱정이 되서...”라고 하였다. 합격을 하기는 했지만 1년 동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했다가는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입학을 1년 유예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대부분 조기입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해에 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입학을 결정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 년 동안 공부를 덜하고 와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서...”, “처음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서 방학 때 혼자 엄청 공부했어요.”라고 하였다. 그 중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다른 형들보다 1년 동안 배우지 않은 게 많은데 하고 걱정하다가 여차피 실력이 되니까 붙은 건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동안 배우지 못한 과학내용보다도 더 걱정되는 건 공부하는 방법이나 문제해결 능력 같은 건데요. 그런 건 차곡차곡 쌓인 노하우니까 그런 차이가 더 걱정 되는 거죠.

## 2) 주제 2: 따라잡음의 문제

학생들은 1년 동안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입학하게 되면서 그 공백을 커버하기 위해 각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스스로 실력이 되니까 붙은 거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못 배운 건 못 배운 거니까 방학 동안 혼자 과학 3학년 과정을 다 공부했어요.”, “수학을 너무 잘해서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가 뒤쳐져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학은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괜찮았는데 과학은 그렇지 않아서 3학년 방학 때부터 여기 들어와서 처음 몇 달 동안 혼자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었죠.”, “1년을 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훨씬 기초도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1년 동안 배울 것들을 못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 열심히 했죠.”, “처음엔 조기입학생이라서 형들보다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입학한 거다 생각하고 노력했어요.”, “1년을 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 훨씬 기초도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등의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인지 차츰 1년의 공백을 보충하고 따라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학년 때부터는 무언가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면서 조금씩 성적도 나아지고...”, “특출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처음엔 좀 헤맸지만 한 학기나 일 년 정도 뒤에는 다 비슷해져요. 결국 누가 더 시간을 투자하느냐의 문제죠.”, “한두 달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애들 보면 오히려 더 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 없는 애들도 많아요.”, “하위권인 아이들도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가장 내신이 좋은 학생이 조기졸업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졸업의 문제가 아니죠.”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도 있지만 처음에는 1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잡음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 중심의미 3: 학교 환경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

세 번째 중심의미는 ‘학교 환경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다. 주제는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쉬임’, 그리고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묶여졌다.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이러한 환경은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3년 동안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나이 차이 같은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 1) 주제 1: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들은 과학영재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과학영재학교라는 특수한 학교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과학영재학교에 입학 후 경험했던 교육과정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덕분에 적응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중학교 때는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서 그냥 혼자 책 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여기는 어렵고 같이 해야 하는 게 많으니까...”, “중학교 수업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하면 감점하셔서 싫었던 점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엄청 좋을 것 같고 웬지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웃음).”, “중학교 땐 애들이 공부 안하고 재미없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중학교 때와는 완전 판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로 도와가며...” 등의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조기입학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과학영재교육원의 경험이 있고 과학영재교육원이나 학원 등에서 만나던 아이들로부터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갈 수만 있다면 모두 가고 싶어 했던 학교라고 하였다. 과학영재학교는 환경이든 교육과정이든 다양한 기회이든 무언가는 특별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망했다고 표현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교육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저희 학교는 과목별 선택한 강좌들을 대학처럼 학점으로 선택해서 배우거든요. 교과서 내용도 대학교에서 다루는 심화된 지식들을 배우고 실험과 연구시간이 많아서 일반학교보다 수학과 과학의 다양한 부분들을 훨씬 많이 다루고 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일반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실험기구들도 사용할 수 있고, 대학교 교수님들과 연구하는 실험, 스스로 주제를 생각하고 연구를 계획하는 실험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 형들이기 때문에 서로 돕게 되고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 2) 주제 2: 기숙사 생활에서 오는 섞임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3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기입학이나 연령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형들과 지내는 것이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많은 시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벽을 허물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간 것이다. “기숙사에서 3년이나 같이 지내다보면 안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인원이 적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금방금방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부대끼며 같이 살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면서도 아주 친근하게 되는 건 당연하

지만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보세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요(웃음)”, “기숙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라고 하였다. 다음 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형이라고 부르지만 존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웃음). 나이 차이가 있다고 서로 거리감이 큰 것은 전혀 아니구요. 다들 똑같이 서로 친하게 지내요. 아주 가끔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분 상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런 갈등도 10~20분 정도 지나면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게 돼요. 같이 사는데요, 뭐… (웃음).

### 3) 주제 3: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

학업에 열중하는 학교 분위기는 나이 차이를 문제 삼거나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적 흥미나 학교 공부가 재미있느니 따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빠진 것 같아요.”, “학습량이 장난이 아니라 서로 바쁘니까 서로 모르는 거 물어 보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정도로 수준도 훨씬 높고 양도 많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니…”, “모두 선별된 영재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서로 물어보며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 경쟁의식을 많이 느꼈고 학업 분위기도 중학교 때보다 훨씬 좋아서요.”, “다른 영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면이 큰 메리트이고요.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나 다른 여러 활동들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뭔가 여기에 다닌다는 생각만 해도 좋은데 형들도 잘해주고 공부할 분위기가 좋아서…”, “형들도 그렇고 선생님들과도 친구같이 지내고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서로 좋죠.” 등의 진술이 있었으며 다음의 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는 워낙 수준도 높고 서로 잘하는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엄청 물어보고 자기도 잘 못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럴 땐 오히려 더 좋죠. 만약 동갑이라면 저 친구는 알고 나는 모르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웃음).

이 외에도 “솔직히 중학교 때는 좀 무서운 애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중학교 때에는 솔직히 친구들에 대해서 무서운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어려서부터 친숙한 학원이나 영재교육원이라는 집단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학교 같아요.”, “힘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노는 것도 좀 과격하고요.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좋죠(웃음).” 등 모두 학업에 신경 쓰는 학생들만 모여 있는 분위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라. 중심의미 4: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님**

네 번째 중심의미는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님’이었는데, 주제는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함’, ‘센스가 부족함’, ‘리더로 나서기 어려움’ 등으로 볼 수 있었다. 같이 생활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나 가끔은 센스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동감만 있을 때보다는 리더로 나서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리더로 활동하는 조기입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기입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1) 주제 1: 형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함**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의식하게 되는 면이 많았지만 차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진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단지 형이라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음... 나이 차이 때문에 화가 나도 함부로 욱하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가끔 형들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차이를 느낄 때가 있긴 하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구요.”, “형들이 조금 심술을 부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 친해서...”,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고 정신적으로 제가 더 어리기 때문에...”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었다. 다음은 진술 전체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특별히 불편함이라면 다들 장난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살 많은 사람들이다보니 살짝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명에는 형을 안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그냥 굳이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니다.

**2) 주제 2: 센스가 부족함**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기입학생들이 가끔 센스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동아리 면접 같은 것을 볼 때 다른 동급생 형들에 비해 센스 같은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웃음)”, “다른 조졸 학생이 동급생 형한테 과한 장난을 쳤을 때 그 형이 형한테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해서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웃음)” 하지만 이 또한 매우 드문 일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3) 주제 3: 리더로 나서기 어려움**

학생들이 동급생들과 있을 때보다는 리더로 나서기를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친구들만 있을 때는 리더 역할을 많이 하고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던 반면 확실히 형들과 지내면서 약간 의견을 제시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고 형이니까 하고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서클의 장은 조졸이 아닌 형들이 주로 맡기는 합니다.” 등의 진술로 나타났지만 이상의 두 학생들도 이러한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 중심의미 5: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함**

다섯 번째 중심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함’이었으며,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 ‘생활면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음’, ‘성격이 중요함’의 주제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호칭은 형이나 누나를 사용하지만 친구처럼 모두 잘 지낸다고 하였으며, 생활면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1) 주제 1: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

학생들은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면서도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낸다고 강조하였다. “3년을 같이 지내다보면 결국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한 두달은 형들과 대화하는 것, 쉬이는 것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금방 친구같이 되어서...”, “형이라고 하기만 하면 나중엔 어차피 친구같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호칭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곧 반말하고 친해져요.”, “분위기가 모두 친한 분위기에요. 선생님과 학생도 친하죠.”, “원래 학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예절이 중시된 분위기라... 선후배 간의 예절과 외부인이나 선생님에 대해서도 깎듯하게 인사하는 분위기로요. 선생님들도 선후배 서로 잘해주는걸 강조하셔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구요. 다 친구가 되는 거죠.”, “사실 학교 폭력도 없고 형들이 저희에게 잘해주어서...”, “사실 형이라 부르지만 자연스럽게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요.” 등의 진술에서 알 수 있으며 다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동기들에게는 형이라고 부르고 반말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별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나이차이가 있다고 서로 거리감이 큰 것은 전혀 아니며 다들 서로 똑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2) 주제 2: 생활면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음**

학생들은 스스로를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생활면에서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상송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그건 어려서가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고 나면 처음보다 긴장도 풀리고 했으니까 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난히 호칭에 민감한 사람이 가끔 있지만 모든 생활면에서 나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도 생활도 오히려 조기입학생들이 더 잘한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등에서 잘 나타난다.

**3) 성격이 중요함**

적응 측면에서는 성격의 문제이지 조기입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사교성 같은 활발한 성격의 문제예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어차피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혼자 놀고...”, “어리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

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교우관계가 좋고 원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림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함 키가 크고 같이 캐릭터로 생각하면 되요.”,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운동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어려도 잘 놀고 다니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혼자 놀고, 그런데 조기졸업 아닌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으니 결국 나이는 상관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별로 문제될 것도 없고...”, “처음에는 연구나 실험 등에 팀을 짤 때 팀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될 것 같아 주저하기도 했던 점...(중략)...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는 계속 학급회장을 맡고 있고, 서클장도 맡고 형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갔었어도 첫 학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렵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대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울릴 수 있어요.”,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는 개인 능력과 성격의 차이이지 조기입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등에서 잘 나타나며 다음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조기졸업자들도 학교 활동에 꽤 많이 참여하고 공연서클, 운동서클 등에 조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형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고 많이 참여합니다. 농구부에는 조졸이 없지만 축구부 같은 경우는 조졸이 11명 중 2명이 있고, 밴드부에도 6명 중 1명 있고... 아무튼 나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꼭 이런 서클활동 뿐만 아니라도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답변은 사회적인 적응 측면에는 아주 문제를 겪는 학생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 2. 통합적 진술

13명의 조기입학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경험으로부터 13개 주제와 5개의 중심의미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영재 학생들의 조기입학의 경험에 대하여 통합적인 진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조기입학한 과학영재들은 연습 삼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놀라움이 컸으나 스스로 자신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아하고 잘했었음을 합격의 이유로 생각하고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록 준비되지 않았던 입학이었고 1년이라는 공백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업을 따라잡는 문제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처음 한두주 또는 한두 달에서 한학기 또는 많게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학교 환경이었는데 이는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기숙사 생활 그리고 학업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등이 영재학생들로 하여금 나이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물론 형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나 센스가 부족하고 리더로 나서기에 주저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며 학업의 양도 많고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 많아서 모두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학업에 열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웠던 형들은 형

이라 부르는 친구가 되고 서로 적응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 나타난 중심의미는 과학영재학교에 조기입학하는 학생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합격소식을 듣게 되고 1년 공백에 대해 걱정하지만 입학 이후에 학업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응하고 따라잡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응에는 학교의 분위기가 크게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적응하는 문제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두 자기 자신의 마음먹기나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었다. 1년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 형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입학의 경험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는 학업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거나 후회한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입학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기입학의 경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학영재 학생들의 교육적 중재를 위해 좀 더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조기입학 학생들이 입학 당시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학업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는 조기입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아내었던 외국의 많은 연구들(Brody, 2001; Colangelo, Assouline, & Gross, 2004; Gross, 1994, 2004, 2006; Kulik & Kulik, 1991; Lubinski & Benbow, 1994; Moon & Dixon, 2006; Stanley & Benbow, 1983)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기진급 후 학생의 학업 상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하고 있으며, 도전적인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Kulik, 2004)으로 나타났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수가 너무 적고 또 연구에 참여했던 조기입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모두 성적이 더 좋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기진급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다(Janos, Sanfilippo, & Robinson, 1986; Noble & Robinson, 1985)고 밝혔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성적을 자신 있게 언급한 네 명을 제외하고는 단언할 수 없으며, 외국의 연구들이 소수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학생의 조기입학과 같은 배치에서 나이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어려웠으나 차츰 열심히 공부하며 따라잡아 갔다는 본 연구에서의 진술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조기입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Gregory와 Stevens-Long(1986)의 연

구에서 학생들이 입학한 첫 해에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같은 연령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과학영재학교에 1년 일찍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1년 배우지 못한 과정에 대한 입학전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입학 전에 가지게 될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기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잘 적응하고, 형들과 서로 협동하며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기입학 후 적응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그 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로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나타났던 Murator, Colangelo와 Assouline(2005)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과학영재학교의 조기 입학 학생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영재학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이나 학습 분위기 등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 많은 수업을 하면서 또는 소위 힘을 쓰려는 학생이 없이 모두 학업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 도와가며 학습하고 나이가 부각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조기진급한 학생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 틈에서 갑자기 도전적인 학습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위축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Olszewski-Kubilius, 1995; Robinson, 2004)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조기진급에 따른 학업동기와 자기조절적인 학습능력에 대해 연구한 이미순과 조석희(2006)의 연구에서는 조기진급을 한 학생들이 오히려 학업에 관련하여 자신에게 가지는 효능감, 학습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학업 자체에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자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순 외(2006)의 연구 결과는 Kulik (2004)의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학습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과 학업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세 등이 긍정적인 학문 성취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들의 추적연구에서 조기입학과 같은 속진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Moon과 Dixon(2006)은 영재아동들이 재능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전과 함께 그러한 재능을 개발하고 다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영재성이나 잠재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환경이라는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 내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인데(Gross, 1994), 더 깊이 학습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일 때 학습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준다(Gross, 2004)고 하였다. 도전적인 학습환경과 함께 비슷한 능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속진의 기회를 제공받은 영재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영재학생들보다 학업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 독립성, 행복감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보이며(Gross, 2004; Robinson & Robinson, 1982, Gagne & Gagnier, 2004), 오히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동일한 연령의 또래들과 학습할 때, 더 많은 정서적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langelo, 2002; Davis & Rimm,



2004). 조기입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높은 자신감과 강한 내적 통제 등을 보이며(Brody & Benbow, 2004), 학업적 속진은 장래에 학습에 바탕이 되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킨다(Southern & Jones, 2004)고 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영재학생들에게는 좀 더 도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즉 학습적인 측면과 성격발달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교에서 학년을 뛰어넘는 속진을 실시한다면 결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 사이에 혼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감을 저하시켜 미성취 문제(Olszewski-Kubilius, 1995)를 일으키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어 미성취 양상을 보이게 된다(Gregory & March, 1985)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입학을 고려할 때에는 학교 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학생의 성격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석희 외(2006)는 학생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처럼 조기졸업이 학생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학업적인 면만을 고려할 때에는 조기졸업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작정 제도적 확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중에서는 외국의 Noble와 Drummond (1992)의 연구나 Gregory와 March(1985)의 연구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포기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연령 차이, 위아래의 구분이 확실한 분위기에서는 조기입학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영재상담 교사가 고용되고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기숙사 사감이 고용된 이후 조기입학 대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상승했다는 Saylor (1993)의 연구를 보아도 조기입학이나 속진과 같은 진보적인 교육적 중재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진은 영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비용 효과적인 교육적 중재가 된다(Colangelo, Assouline, & Gross, 2004)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긍정적인 성취가 Kulik(2004)의 연구에서처럼 계속 적응을 잘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해가 지날수록 학교생활을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지에 대한 추후 장기적인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조기입학이 학업적으로나 사회 정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까를 고민하는 영재아를 둔 부모나 교사, 또는 영재학생 자신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학업적으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 개인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의 성격

적인 면을 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영재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중재는 속진이며 영재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모들이나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년을 뛰어넘는 교육적 선택에 대한 주저함이 있다(Sayler, 2006).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더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조기입학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영재학생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교육적 중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유어나 초등학교급 또는 대학교급에서 조기입학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연령에 대한 조기입학이나 속진에 대한 추후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 1년을 단축한 경우이므로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단축한 경우까지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기간을 단축한 조기입학생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추후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Colangelo 외(2004)는 2년 또는 그 이상의 속진이 영재학생들에게는 적절하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년 이상 학년을 뛰어넘어 속진을 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과학영재학교에 한해에 한두 명씩 있는 정도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기입학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성취 및 적응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기입학을 선택한 학생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지만 조기입학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장기적인 종단연구 등을 통하여 영재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영재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전반적인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미순, 조석희, 이현주 (200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유무에 따른 학업 동기와 자기조절적인 학습능력. **교육심리연구**, 20(4), 955-973.
- 이미순, 조석희 (2009).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후 학생적응에 대한 부모지각. **영재교육연구**, 19(3), 441-432.
- 조석희, 이미순, 박성익, 이현주 (200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2006-3.
- Bloom, B.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NY: Ballantine.
- Boazman, J., & Sayler, M. (2012). Personal well-being og gifted students following participation in an early college-entrance program. *Roeper Review*, 33(2), 76-85.

- Brody, L. E. (2001). The talent search model for meeting the academic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Gifted and Talented International, 16*, 99-102.
- Brody, L. E., & Stanley, J. (1991). Young college students: assessing factors that contribute to success. In W. T. Southern & E. D. Johns (Eds.), *Academic acceleration of gifted children* (pp. 102-132).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Brody, L. E., & Benbow, C. (2004). Accelerative strategies: How effective are they for the gifted? In L. Brody (Ed.), *Grouping and acceleration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pp. 57-67).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Brody, L. E., Assouline, S., & Stanley, J. (1990). Five years of early entrants; Predicting successful achievement in college. *Gifted Child Quarterly, 34*, 138-142.
- Callahan, C. M., Cornell, D. G., & Lloyd, B. H. (1992).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personal adjustment of high ability young women in an early college entrance program.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D. L. Ambrosio (Eds.), *Talent Development: Proceedings from the 1991 Henry B. and Jocelyn Wallace N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Talent Development* (pp. 248-260). New York: Trillium Press.
- Colangelo, N. (2002).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Research Monograph No. RM 02150). Storrs, C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Colangelo, N., Assouline, S., & Gross, M. U. M. (2004). *A nation deceived: How schools hold back america's brightest students* (Vol. 1). Iowa City, IA: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5th ed.). Boston: Allyn & Bacon.
- Gagne, F., & Gagnier, N. (2004). The socio-affective and academic impact of early entrance to school. *Roeper Review, 26*, 128-138.
- Gallagher, J. (2002). *Society's role in education gifted students: The role of public policy*. Storrs, C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regory, E., & March, E. (1985). Early entrance program at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Gifted Child Quarterly, 29*, 83-86.
- Gregory, E. H., & Stevens-Long, J. (1986). Coping skills among highly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9*, 147-155.
- Gross, M. U. M. (1994). Radical acceleration: Responding to academic and social needs of extremely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5*, 27-34.
- Gross, M. U. M. (2004). Radical acceleration.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 M. U. M. Gross

- (Ed.), *A nation deceived: How schools hold back America's brightest students* (Vol. 2, pp. 87-96). Iowa City, IA: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 Gross, M. U. M. (2006).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Long-term outcomes of academic acceleration and nonacceleratio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9, 404-429.
- Janos, P. M., & Robinson, N. M. (1985). The performance of students in a program of radical acceler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Gifted Child Quarterly*, 29, 175-179.
- Janos, P. M., & Robinson, N. M. & Lunnenborg, C. (1989). Markedly early entrance to college. *Journal of High Education*, 60(5). 495-518.
- Janos, P. M., Sanfilippo, S., & Robinson, N. M. (1986). "Underachievement" among markedly accelerat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303-313.
- Kulik, J. A. (2004). Meta-analytic studies of acceleration.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 M. U. Gross (Eds.), *A nation deceived: How schools hold back America's brightest students* (Vol.II, pp. 13-22). Iowa City, IA: The University of Iowa.
- Kulik, J., & Kulik, C. (1991). Research on acceleration.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190-191). Boston: Allyn & Bacon.
- Lerninger, M. M. (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nursing*. Orlando: Crune & Stratton Inc.
- Lubinski, D. (2004). Long-term effects of educational acceleration.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 M. U. M. Gross (Eds.), *A nation deceived: How schools hold back America's brightest students* (Vol.II, pp. 23-37). Iowa City, IA: The University of Iowa.
- Lubinski, D., & Benbow, C. P. (1994). The 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 (SMPY): The first three decades of a planned fifty-year longitudinal study of intellectual talent. In R. Subotnik & K. Arnold (Eds.). *Beyond Terman: Longitudinal studies in contemporary gifted education* (pp. 255-281). Norwood, NJ: Ablex.
- Lupkowski, A., Whitmore, M., & Ramsay, A. (1992). The impact of early entrance to college on self-esteem: A preliminary study. *Gifted Child Quarterly*, 36, 87-90.
- Marsh, H., W., & Hau, K.-T. (2003). Big-fish-little pond effect on academic self concept: A cross-cultural (26-country) test of the negative effects of academically selective schools. *American Psychologist*, 58, 364-376.
- Moon, S. M., & Dixon, F. A. (2006). Conceptions of giftedness in adolescence. In F. A. Dixon & S. M. Moon (Eds.), *The handbook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pp. 7-33). Waco, TX: Prufrock Press.
- Murator, M., Colangelo, N., & Assouline, S. (2005). Early entrance students: impressions of their 1st semester of college. *Gifted Child Quarterly*, 47(3), 219-238.
- Noble, K. D., & Drummond, J. E. (1992). But what about the prom? Students' perceptions of early college entrance. *Gifted Child Quarterly*, 36, 106-111.

- Noble, K. D., & Smyth, R. K. (1995). Keeping their talents alive: Young women assessment of radical, post-secondary acceleration. *Roeper Review*, 18, 49-55.
- Noble, K. D., Robinson, N. M., & Gunderson, S. A. (1993). All rivers lead to the sea: A follow-up study of gifted young adults. *Roeper Review*, 15, 124-130.
- Olszewski-Kubilius, P. (1995). Thinking through early entrance.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Newsletter*, 2(2), 1-5.
- Olszewski-Kubilius, P. (2002). A summary of research regarding early entrance to college. *Roeper Review*, 24(3), 152-157.
- Robinson, H. B. (1983). A case for radical acceleration: Programs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C. P. Benbow & J. C. Stanley (Eds.), *Academic precocity: Aspects of its development* (pp. 139-15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obinson, N. M. (2004). Effects of academic acceleration of the social-emotional status of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 M. U. M. Gross (Eds.), *A nation deceived: How schools hold back America's brightest students* (Vol. II, pp. 59-67). Iowa City, IA: The University of Iowa.
- Robinson, N. M., & Noble, K. D. (1992). Acceleration: Valuable high school to college options. *Gifted Child Today*, 15, 20-23.
- Robinson, N. M., & Robinson, H. B. (1982). The optimal match: Devising the best compromise for the highly gifted student. In D. Feldma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approaches to giftedness and creativity* (pp. 79-94). San Francisco: Jossey-Bass.
- Saylor, M. F. (1993). Profiles of successful male and female early college entra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Atlanta, GA.
- Saylor, M. F. (2006). Special school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n F. A. Dixon & S. M. Moon (Ed.), *The handbook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pp. 547-559). Waco, TX: Prufrock Press.
- Southern, T., & Jones, E. (2004). Types of acceleration: Dimensions and issues.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 M. U. M. Gross (Eds.), *A nation deceived: How schools hold back America's brightest students* (Vol. II, pp. 23-37). Iowa City, IA: The University of Iowa.
- Stanley, J. C. (1991). Young entrants to college: How did they fare? *College and University*, 60, 219-227.
- Stanley, J. C., & Benbow, C. P. (1983). Extremely young college graduates: Evidence of their success. *College and University*, 58, 219-228.
- Stanley, J. C., & McGill, A. (1986). More about "Young entrants to college: How did they fare?" *Gifted Child Quarterly*, 30, 70-73.
- Swiatek, M. A. (1993). A decade of longitudinal research on academic acceleration through the 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 *Roeper Review*, 15, 120-124.

Swiatek, M. A., & Benbow, C. P. (1991). Ten-year longitudinal follow up of ability matched accelerated and unaccelerated gifted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28-538.

= Abstract =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arly Entrance Experience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Miran Chu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early entrance experience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 students who are attending science gifted high school in Seoul.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qualitative study applie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Giorgi. The early entrance experiences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were clustered into 13 specific themes and 5 general structu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arly entrance students were surprised by their admissions from the school and they worry about their lack of readiness. However, they follow up their missed 1 year study after all. It took from a few weeks to 1~2 years depending on the student. At any rate, the environment of the school such as differentiated curricular, dormitory life, and studying atmospheres were helpful for the students to adopt easily. Even though they sometimes show a little deficiency, it won't be an issue, they just incorporate each other and pursue their studies. As time goes on, they become friends even though they call other students 'big brother'. When the placement of gifted students take place, we do not need to hesitate because of their age, but need to consider the environment of school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

**Key Words:** Gifted students, Early entrance, Science Gifted High School, Phenomenological study

1차 원고접수: 2013년 1월 30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2월 25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2월 25일